提 言

自然학습원 育成策이 時急하다

呉　判　龍

지난 5月初 某日刊紙에 크게 報道되었던『C 국립공원의 自然학습원, 운영난으로 낮잠』이란 부끄러운 記事는 事實과 다르다는 消息을 들었다. 8억수천만원의 건설비와 근 5년의 공정끝에 작년 봄에 門을 연 것으로 알려져 각급 학교의 青少年들이 방학이나 연휴 등을 활용. 제대로 自然을 즐기고 自然을 배우며 친숙해 질수 있겠다고 반가워하던 참인데, 운영난으로 제구실을 못한다는 記事를 읽고나니 속이 메스 꺼워 견딜수가 없었다. C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道산하 각급학교도 여름放學에 들어서자 각 학교마다 自然학습, 문화유적순례, 극기훈련 등 야외수련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 속에 例의 C국립공원 자연학습원에 신청하는 학교가 있지 않은가? 「門닫았다」는 그 부끄러운 記事는 一時的 現狀이었던가. 기쁜 마음으로 공원管理所長에게 장거리 通話했더니 「誤報였지오… 時期的인 現狀을 "오버센스" 한것 였죠…昨年엔 위탁경영했으나 今年부터 道直營이며, 신청人員도 작년比 30%나 불어 6천 4百명이나 된다」고 解明했다. 정말 고마운 誤報였길 빈다. 豫算문제 등으로 위탁경영자와의 사이에 무언가 若干의 内容이 있었으리라는 推理도 가지만 道가 直營하든 教育委서 直營하든 營利事業이 아닌 自然環境 教育사업을 위해 그 훌륭한 自然教場을 제때에 살렸다는 것은 반갑고 賢明한 措置라 본다.

自然학습이나 青少年의 건전한 야영활동에 어느 때보다 매스컴이 깊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立證해 주는 것이다. 뉴스시간帶나 자연공원 시리즈物 등으로 동식물 사진과 새소리를 朝夕으로 들려 주는 KBS와 MBC를 비롯 各 日刊紙나 月刊誌의 自然記事 취급의 熱意는 너무나 진지하여 自然教育의 資料室을 提供해 주고 있는 듯하다.

현재 연재되는 자연과 관계되는 시리즈 記事를 보면 東亞日報=鄕土의 숨결, 江原日報=山따라 고을따라, 光州日報=智異山, 慶南新聞=祕境 閑麗海上 국립공원, 京仁日報=山, 大邱 每日新聞=길따라 人物따라, 스포츠서울=世界의 觀光名所, 全北日報=天然記念物, 忠清日報=名山巡禮, 韓國經濟=植物의 世界 朝鮮日報는 지난 6·25特輯에서 休戰線의 生態系畵報를 만들었고 月刊科學 8月號는 美國의 大自然을 特輯했다. KBS는 8月 8日부터 洞窟시리즈를 企劃하고 있다하며, MBC는 이날 黒山島 자연실태 기획물과 智異山의 四季시리즈를 흥미있게 보여준다. 그리고 慶州서의 전국 청소년연맹잼버리대회 등 각종 야영장의 특집과 최근 발견된 内藏山의 단풍群落 등도 소개했다. 얼마전 H紙의 「山村留學」칼럼은 가슴을 탁트이게 해 준다. 放學때 어린이를 시골로 보내 人性을 바로 잡게 하고 情緒를 복돋워 주자는 都市의 學父母 소원과 이들을 받아 들여 農村에 활기를 불어 넣자는 시골 學父母의 希望이 相通되어 크게 發展하는 日本의 경우가 부럽다. 맘껏 自然의 품속에서 뛰놀면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많다. 自然을 사랑하자 一自然을 保護하자고 외치지만 우리의 自然公園. 아니 가까운 都市公園이나 마을 뒷山에만 가도 온통 쓰레기, 休紙 투성이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自然 학습을 다시 하지 않으면 三千里 江山이 汚物天地가 될 危險性도 있다. 環境교육은 家庭과 學校 그리고 社會가 혼연一體가 되지 않으면 成果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릴때부터의 自然學習을 통한 自然愛護의 倫理觀이 세워져야 할 것 같다. 日本의 경우 1934年에 國立公園制度가 導入됐으나 利用者가 붇기 시작한 것은 戰後인 48年부터였고 우리가 6·25의 쓰라림을 當할 때인 50年부터 그들은 놀라운 經濟發展과 함께 公園利用者의 急增現象이 계속됐다. 더욱 갑자기 施設을 擴張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어느 公園에 가봐도 秩序가 있고 清潔하며 더러운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땅도 크고 人口도 우리보다 많긴 하나 84年의 全體자연공원(國立27, 國定54, 縣立 297)의 利用客이 8億 7千 2百萬名이다. 우리나라의 84年度 17個 國立公園 全體 利用客은 2천6百萬名으로 集計돼있는데, 이 數字는 日本의 비와꼬(琵琶湖) 國定公園한 군데의 年間 利用客 數와 꼭 같다. 우리도 道立21, 郡立 21個의 自然공원까지 合치면 모두 59個의 自然公園이 全國 곳곳에 散在돼 있다. 84年 日本 統計中 富士, 箱根, 伊豆의 3個 국립공원 이용자는 9천3百만명이다. 멀지 않아 北漢山은 물론 首都圈 및 大都市와 接한 自然公園은 波濤처럼 利用客이 몰릴 것이다.

瞬間에 닥아 올 것이 分明하다. 自然學習, 自然사랑의 教育은 國家的 次元에서 推進돼야 한다. 각급학교는 물론 직장인들도 들어가서 배워야 하며, 각도 학습원의 효과적 운영을 強力히 실천해야 한다. Z 부처간의 협동으로 면밀히 실천돼야 한다.

〔필자 : 한국국립공원협회 사무국장〕